

社說

知性人的 현실참고

이성적인 현실참고... 지성인의 현실참고... 지성인의 현실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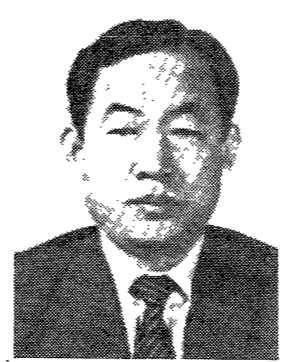


有閑族... "세상은 아름다워라"

有閑族... "세상은 아름다워라"...

누가 피땀 흘리며 일합의 유나 했는가

어떤 재계 총수는 사채시장 큰손에 '넌죽'



朱致鎔

어떤 재계 총수는 사채시장 큰손에 '넌죽'... 누가 피땀 흘리며 일합의 유나 했는가...



트림프와 미까지 등장한 안방... 한집전너 카페, 두집전너 살롱, 세집전너 사우나...

한집전너 카페, 두집전너 살롱, 세집전너 사우나...

한집전너 카페, 두집전너 살롱, 세집전너 사우나... 트림프와 미까지 등장한 안방...

한집전너 카페, 두집전너 살롱, 세집전너 사우나... 트림프와 미까지 등장한 안방...

자원의 모습... 이 해풍... 鍾閣出版社

Table with columns for exam dates and subjects: 예비군 보충교육

제 6 회 전국대학생 통일논문 현상모집

한 민족은 인류문명의 종주국이다!! 鍾閣出版社

30년 전통의 대학생을 위한 外國語 專門 Training Center

대학휴학자 군 입영안내

국토통일원장관 1987년 4월



이 작 초

이제 20년째... 노조운동은 범사회적 요구로 확대

노조운동은 범사회적 요구로 확대

노조운동은 이제 단순한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장시간노동·처벌금이 노사분규악기

정체적 노조활동의 자유로운 보장이 과제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운동의 범사회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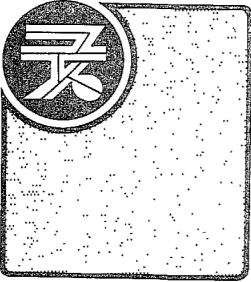


노사분규가 자유로운 보장이 과제

軍 · 행정병 모집 차트... 732-5346 735-3771

회원모집 English Drama Club... 서울 영어연극회 Seoul English Drama Club

사랑과 미움, 배신과 복수의 대로망! The Other Side of Midnight... 5월 16일 개봉



제급모순의 척결이 국의 과제 변혁적 운동속에서 올바른 정서 창출시켜야

상적인 측면만을 바라본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더 정확히 짚어 내야 할 것은 국에서의 무당의 역할이고 무당과 국에 대한 모인 대중들의 관계이며 국판이 대중적인 카타르시스를 낳게 하는 그러한 의의와이다.

국은 기본적으로 共同精神을 그 기반으로 하여 나타난다. 공동체 정신이란 관념적으로 공동의 열의, 공동의 행동으로 추상화되어 설명되기 보다 기본적으로 생

을 주로 하는 마을에서 행해지는 마을굿인데 여기에는 동양에 한해의 바다농사를 무사케 해달라는 기원을 하는 제의형식을 통해 그들의 노동과정에서 맺어 있던 억압과 고난이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전까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던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던) 그들의 열의와 열의가 공동으로 맺어지며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후의 극복의지는 비로소 공동체

- 글 쓰는 차례
1. 국의 歷史의 변천
 2. 국의 미학과민중의 정서미 미의식
 3. 민중종교 사상으로 본 국
 4. 민족국의 과제와 전망

동·발·축축 위원장 최승혁君



지난 4월 29일 결성식을 한 동국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최승혁)의 4월 4일 『대학인들의 건전한 사상과 문화향상을 위한 의식개혁에 주체가 되고 학내기구 총연합회 분기회를 조성하여 내실을 기하는 등 국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떻게 보면 동국발전추진위원회라는 기구는 사실상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가지 학내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그간 간과할 수만은 없어 이 기구결성하게 되었다』는 최위원장은 본리원 분파주의와 동국발전추진위원회에 관한 학생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보려는 자구책에서 출발한 기구인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을 덧붙였다. 『결성식을 가진 이래

“첫걸음이 어렵더라도 찾고자 했던 일에 노력할 것입니다.”

기구에 대한 오해와 일부 편협된 기구들이 정지적인 입장을 취하며 그들만의 시각으로 보려는 것들이 비일비재 하였다. 『성공하게 판단하거나 방관적인 입장보다는 함께 동참하며 자신의 비주체적인 모습이 동국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최위원장은 말했다. 최위원장은 이러한 노력은 어느 한사람만이 해야 할 문제가 아닌 지금껏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열의와 모욕을 극복하고 앞으로 힘 공신키구들이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을 스스로 맡아 처리해나간다면 언제라도 이 기구를 해체하고 1만 5천 동국인들이 동국발전추진위원회를 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임이다』며 기구들의 공식적인 장에 대해 언급했다.

동국발전추진위원회의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는 단체 시비 및 캠페인 활동을 위한 도급운동 전개를 비롯해서 내 복지시설 개선까지를 매운음, 스포츠선과 연예 잡지 안보기, 저속한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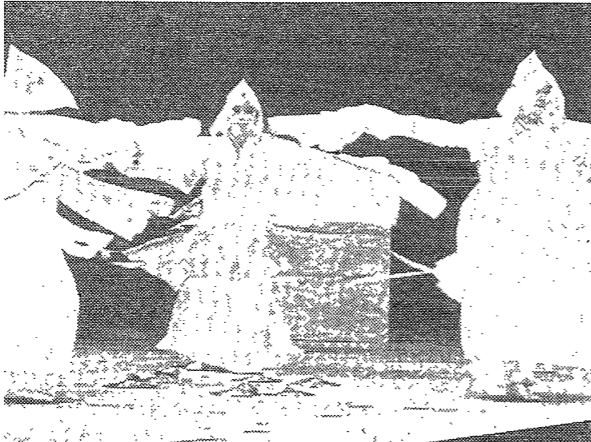
"국은 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

활태도에서 행해지는 구제노동과정에서 배태되는 문화, 정서의 공유로서의 공동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과거 부족국가 시대로부터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는 (적어도 문헌자료상으로는) 국은 부족국가시대에 필연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노동의 공유, 생활문화의 공유를 그 기본 바탕으로 하였다. 이는 농경사회로 사회가 변화되고 또

어떤가,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선 국에 관한 현재의 문제가 되는 경향성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첫째, 문화복고주의는 국을 민중들과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다룬 그 열의의 재현을 통해 전통문화와 열의의 결합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권 쟁취투쟁과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대 우리국은 조국의 자주화라는 과제를 함께 함판 흐드러지는 놀이이고, 투쟁이며 또한 사랑이고 변혁의 지향인 것이다.

이 시대 우리국은 한반도 민중의 가장 큰 모순인 외세침탈에 의한 식민성의 민족현실을 풀어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갖는다.

고 창조적인 집단적 신명(생존권 쟁취투쟁)에 의해 구체화된다. 단일 과거의 토대로 조종되었던 정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대외 민족을 철저히 대상화시키고 주체적으로 국판을 벌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우리 국은 이러한 민족모순을 풀어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갖는다. 조국의 자주화라는 과제를 향하여 국은 한판 흐드러지는 놀이이고 그것을 넘어선 투쟁이며, 사랑이고 또한 한 단계 더 넘어선 변혁의 지향인 것이다.

이 글을 맺도록했다. 먼저 국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오류는 피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국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국에서 몸부림치는 삼(운동)의 총체성 속에 규정되는 국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차적으로 일체의 변혁적 운동 속에서 실제적인 토양이 되는 올바른 정서를 창출시키는 데 있다. 과거 우리 민족적 정서로 내려오던 공동체 정신을 올바른 정서적 토양으로 계승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정신을 기본토양으로 하여 어떠한 축대를 세워야 하는가.

국은 공동체가 안고 있는 모순의 『살풀이』 과정이라 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모순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위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이 시대 한반도 민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의 하나는 철저한 식민성이 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 속에서 찾아

배운 이 글의 주요 내용은 국의 원본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은 제의성과 현실성의 두가지 성격의 통일체로 이야기한다. 즉 국이란 제의성을 매개로 된 현장을 내용으로 한다) 그보다는 『이시대의 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좁은 범위의 (그러나 광범위한 의미)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국은 『살의총체』라 한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우선 국의 역사적 기원, 변천과정에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국이라 하면 흔히 무당에 의한 일종의 제의절차 또는 그것을 통한 공동체 카타르시스 효과 등으로 이해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극히 그 현

국이 지닌 생명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의 실천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실천을 지향하는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입장이어야 함을 뜻한다.

이와같이 국은 두가지 과제를 기본적으로 하여 스스로의 경험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축적된 민중의 정서와 창조적인 민중의 의식 속에서 올바른 역사성을 결합시킨 구체적 형태이며 이는 국판의 주체가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이 땅의 주인으로 등장시키게 하는 자주적 의식의 바탕이고 변혁의지의 총체라 하겠다.

東國漫評



◇有口有言(?)

권성숙 <국태 회원>

젊음의 리듬, 젊음의 감각 '삼바'

부담없는 가격
젊음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삼바

삼바가 있어 더욱 기쁜 밤
삼바가 있어 더욱 즐거운 밤
젊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젊음의 양주 삼바—

삼바는 맛을 아는 젊음이 선택한 양주입니다.

*주질이 개선되어 뒤집어 깨끗하고 병모양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젊음의 양주
삼바
권성소매가격 : 360ml : 1,300원
700ml : 2,400원

